

영어 복사-상승(copy-raising) 구문에서의 논항실현과 해석 제약*

김종복(경희대학교)

Kim, Jong-Bok. 2012. Argument Realizations and Interpretative Constraints in the Copy-Raising Construction. *The Journal of Linguistic Science* 63, 67-88. In accounting for the so-called copy raising (CR) construction, movement approaches have traditionally assumed that the embedded subject of the construction is moved to the matrix subject, leaving behind its pronominal copy. This simple analysis, appealing it may be, encounters issues with authentic data where there is no coindexation relation between the two subject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variations of the CR have to do with the interactions among lexical properties of the CR verbs, argument realization, and interpretive constraints. (Kyung-Hee University)

Key words 복사 상승(copy raising), 인지 동사(perception verb), 해석 제약(interpretive constraint), 인지 근원(perception-source)

1. 서론

통사, 의미 연구의 주요 대상 중의 하나는 능동태-수동태처럼 동일한 진리적

(truth conditional) 조건을 가진 문장 간의 체계적 관계를 기술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대상 중 (1a)와 (1b)와 같은 상승(raising) 구문은 초기 생성문법이 이후 지속적인 연구 주제가 되어 왔다 (Postal 1974, Chomsky 1982, Sag et al. 2003, Davies and Dubinsky 2004).

- (1) a. It seems that Richard is in trouble.
b. Richard seems to be in trouble.

전통적인 변형문법에서는 (1a)와 유사한 구조에서 주어 Richard가 주절로 상승(raising)하여 (1b)와 같은 상승구문을 생성한다는 분석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구문과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진 (2a)나 (2b)와 같은 구문들에 대한 연구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여 왔다 (Potsdam and Runner 2001).

- (2) a. It seems like Richard is in trouble.
b. Richard seems like he is in trouble.

위 두 문장은 의미적 관점에서 (1a)나 상승구문 (1b)와 큰 차이가 없다. 문장 (2a)는 위치구문 (1a)와 유사하게 주어가 허사 it으로 구현되어 있지만, (2b)에서는 내포절의 주어 he와 주절의 주어 Richard가 공지시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두 주어가 공지시하는 문장을 생성하기 위해 Rogers(1971, 1973)는 (2a)의 내포절 주어 Richard가 주절의 주어 자리로 이동하면서, 그 흔적(trace) 위치에 공지시하는 대명사를 복사(copy)하여 남겨둔다는 변형분석을 제안한다. 이러한 점에서 (2b)와 같은 문장은 Copy Raising(CR) 구문 불리운다 (Rogers 1971, 1973).

본 논문은 (2b)와 같은 이러한 복사-상승 CR 구문들이 실제 언어 사용(usage)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말뭉치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어휘론적 접근을 제시한다. 특히 실제언어사용에서 나타나는 CR 구문의 다양한 문법적 속성을 살펴보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문법정보간의 상호 작용이 중시되는 제약기반(constraint-based) 관점에서의 어휘론적 접근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논문을 심사해 주시고 좋은 지적과 제안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평자들의 논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이나 본 논문의 부족한 점은 물론 저자의 몫임을 밝힌다.

2. 복사상승(Copy Raising) 및 신체적 인지(Physical Perception) 동사구문의 속성

복사-상승 CR 구문은 seem, appear 등과 같은 전형적 상승 동사들이 사용되며, 내포절은 like, as if, as though와 같은 제한된 표현에 의해서 도입된다.

- (3) a. She seems like she is laughing hysterically.
b. She tried not to appear as if she was rushing away from the screaming house.
c. Her arms appeared as though they had been lopped off at the wrists.

이러한 CR 구문은 독일어, 스웨덴어와 같은 인구어(Indo-European) 뿐만 아니라 터키어 등에서도 나타나며, 기타 다양한 문법적 제약을 갖고 있다 (Lappin 1984, Moore 1998, Asudeh and Toivonen 2007 참조).

CR 구문에서 가장 주요한 제약은 주절의 주어와 내포절의 주어가 공지시(coreferential)하며, 일반적인 상승구문과 달리 한정(finite) 동사를 포함한 내포절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 (4) a. The lifeguards appear as if they were dancing across the water.
b. He seems as though he could either crack a smile or throw a phone at you.

위 예문에서 내포절의 주어 they와 he는 각각 주절의 주어 the lifeguards와 he를 공지시하는 해석만 가능하다. 두 주어 사이의 공지시 관계를 위반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비문이 된다.

- (5) a. *The lifeguards appear as if he was dancing across the river.
b. *He seems as though she could either crack a smile.

이러한 공지시 조건은 (6)과 (7)과 같이 주어가 허사 there나 it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켜져야 한다 (Potsdam and Runner 2001, Landau 2009).

- (6) a. There looks like there could be a tone-on-tone pattern.
b. It seems like it's raining inside the ER.

- (7) a. *There looks like it's going to rain.
b. It looks like there could be problems.

(7a)와 달리 (7b)가 정문이 되는 이유는 (1a)나 (2a)의 예문 같이 내포절의 주어가 상승(raising)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 예문들은 주절의 주어와 내포절의 주어가 공지시 관계에 있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많은 문헌들은 이러한 seem이나 appear와 같은 상승동사를 포함한 전형적 CR 구문은 신체적 인지동사(physical perception verbs: PPV)인 smell, feel, look, sound, taste를 포함한 구문과 구분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Heycock 1994 Potsdam and Runner 2001, Asudeh 2004, Landau 2009). 인지동사를 포함한 CR구문에서도 두 주어가 공지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CR과 유사하지만 아래 예문처럼 이러한 제약을 지키지 않는 말뭉치 실례들도 찾아 볼 수 있다.

- (8) a. The judge looked as if his candy had been stolen.
b. LeRoi felt as if his heart had been ripped out of his chest.

위의 예문에서처럼 주절의 동사가 look이나 feel과 같은 인지적 동사인 경우 두 주어간의 공지시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 비록 이러한 주어 공지시 조건에서 두 구문이 다르지만, 두 유형은 여러 관점에서 문법적 속성을 공유한다. 예를 들어 두 구문 모두 내포절이 like, as if, as though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 (9) a. Prince appears as if/*that he bears the weight of the world on his narrow shoulders.
(COHA 2007 MAG)
b. I felt as if/*that I had wandered into the wrong restaurant by mistake.
(COCA 2010 NEWS)

또한 두 구문 모두 AP와 같은 서술적 보충어(predicative complement) 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Kaplan-Mirh 2000, Asudeh 2004).

- (10) a. Richard seems drunk.
b. Richard looks/smells/feels/sounds drunk.

전형적 CR 구문과 인지동사를 포함한 CR 구문 모두 허사(expletive)를 주절의 주어로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 (11) a. It seems like they are more and more prevalent. (COCA 2010 NEWS)
b. It looks like Republicans are ready to come and say “no”. (COCA 2010 SPOK)

두 구문 사이에 이러한 공통점이 있지만, 두 주어간의 공지시 조건이나 주절에 사용되는 동사의 속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CR의 경우 이러한 공지시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는 비문이라는 점에서 두 구문 사이의 명백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Potsdam and Runner 2001).

- (12) a. *Richard seems like Gonzo has been baking.
b. Richard smells like Gonzo has been baking.
(13) a. *Jane seems like everything has gone wrong.
b. Jane looks like everything has gone wrong.

위의 예문에처럼 seem이 본동사인 CR 구문 (12a)와 (13a)에서 주어가 공지시되지 않는 경우는 비문이지만, 주절의 동사가 look, smell인 (12b)와 (13b)의 PPV 구문에서는 이러한 공지시 조건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두 구문과의 공통점 및 차이점은 CR 구문을 이해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상승동사를 포함한 CR 구문과 및 신체적 인지동사를 포함한 CR 구문의 기본적 속성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다음 연구 주제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 CR 구문과 동일 혹은 유사한 의미를 가진 외치, to-부정사 상승구문, 비상승 CR구문 간의 어떠한 체계적 관계가 존재하는가? 이들 각 구문에 대한 통사, 의미, 화용적 제약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법적 제약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 CR 구문과 달리 주어 공지시 조건이 없는 PPV 구문의 문법적 특징은 무엇인가? CR과 PPV 두 구문이 갖는 통사 및 의미적 구조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인가? 어떠한 문법적 제약이 두 구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져오는가?

3. 복사-상승 CR 구문에 대한 기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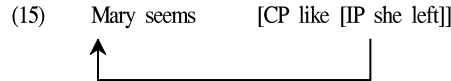
복사-상승 CR 구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현대 통사이론에 여러 가지 주요한 질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주절의 주어와 내포절의 주어가 공지시해야 하는 조건은 현대 문법이론의 주요한 제약 중의 하나인 하위범주화에서 국부성 조건(locality of selection)을 위배한다는 점에서 그 연구 가치가 높다.¹⁾ 현대 문법이론에서 국부성 조건은 과잉 생성(overgeneralizations)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한 제약 중의 하나이다. 예를 들어 (10a)에서 본동사 believe는 자신의 주어나 목적어에 대한 제약을 가할 수 있지만, 보충어절의 주어인 the student에는 제약을 가할 수 없는 국부적 선택 제약을 준수한다 (Postal 1974, Rooryck 2000).

- (14) a. We believe that the student sings well.
b. The boy seems as if he/*she is in trouble.

그러나 CR 구문인 (14b)의 경우, 본동사 seems는 자신의 주어뿐만 아니라 내포절 주어 ‘he’에도 제약을 가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국부성조건을 지키지 않는다. 영어문법이 이러한 비국부적 조건을 모든 경우에 허락하게 된다면 문법의 과잉생성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CR의 비국부적 제약 환경은 현대 통사이론에 주요한 숙제를 던져준다 (Kim and Sells 2008 참조).

CR 구문이 제기하는 또 다른 문제는 이동분석의 타당성이다. Wh-구문과 같이 비국부적 의존성을 포착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이동(movement) 규칙이다. 변형문법 틀안에서 Rogers(1971, 1973)는 CR 구문에서 두 주어의 동일성 조건을 설명하기 위해 이미 논의된 바와 같이 내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로 이동하고, 그 흔적 자리에 대명사 복사가 일어난다고 본다.

1) 영어 가정법 구문인 The teacher suggested [that the student be prepared for the exam]와 같은 구문은 주절의 동사 suggest가 내포절의 동사 형태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국부성조건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인다. 즉 주절의 동사 suggest가 자신의 보충어에 대한 제약을 가할 수 있지만, 보충어 내부구조에 대한 제약은 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변형문법인 GPSG, LFG, HPSG에서 이러한 국부성조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핵어자질(head feature)이다. 즉 내포절의 주동사 be의 자질 값이 내포절 상위까지 상속하게 하여, 국부성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Sag et al. (2003), Kim and Sells (2008) 참조.



최소주의 관점에서 CR 분석을 제공하는 Ura(1998) 역시 이동이 CR 구문 생성에 주요한 기반이 되는 것으로 본다. 특히 개별언어규칙은 Rule S를 도입하여 A-chain에 있는 흔적이 머리(head)에 있는 명사구의 대명사 복사(pronominal copy)를 하는 규칙을 설정한다. 예를 들어 “Eze seems like he saw Ada.”와 같은 문장을 생성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기저 구조에서 EPP, 자질점급, 격자질 점급, Rule S와 같은 규칙들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16) [VP seems [CP like COMP [TP Eze T [VP see Ada]]]]

그러나 Potsdam and Runner(2001)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이동 규칙 및 언어개별규칙은 기타 구문과의 차별성을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진다. 또한 이러한 분석은 시제절의 요소는 이동할 수 없다는 시제절조건(Tensed S Condition)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인 문제를 떠나 CR 및 PPV 구문의 상관성에 대한 논의는 전혀 포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완성된 분석이라 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동이 갖는 심각한 문제점은 이동규칙이 갖는 일반적 제약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내포절의 주어가 격(case)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동에 대한 이유, 즉 촉발자(trigger)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제절의 주어가 이동한다는 점에서 Chomsky (1982)의 Tensed-S 제약이나 Subjacency와 같은 주요한 통사적 제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CR 이동규칙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²⁾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와 더불어, Richard 변형규칙을 받아들인다면 내포절의 주어가 과연 이동한 후 대명사 복사(pronominal copying)를 가능하게 하는 통사적 기제(mechanism)에 대한 의문점이 제시된다. 즉 일반 명사와 공지시하는 대명사만을 남겨두는 것을 보장하는 명확한 장치가 필요하다.

2) 시제절의 요소가 이동될 수 없다는 Tensed S 조건은 *The footballers are believed [are talented] 혹은 *This is the painting that everyone wonders whether it will be for sale에서와 같이 수동태 구문의 주어나 관계절의 핵어가 내포절의 요소와 관련될 수 없음을 설명한다.

이동규칙을 도입한 분석과 달리 Potsdam and Runner(2001)은 주절의 주어와 내포절의 주어가 기저에서 생성되면서 A-chain을 형성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기저생성분석은 Ura(1998)의 분석이 갖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하지만, 기저에서 A-chain을 형성하는 조건에 대한 이유를 제공하지 못하며 국부성 조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Ura와 마찬가지로 CR 및 PPV 구문의 차이점 및 공통점을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Asudeh (2004), Asudeh and Toivonen(2007)도 비변형문법인 LFG 관점에서 해당구문을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CR 구문의 생성을 이동규칙보다는 기저생성으로 설명하고, PPV와의 차이점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논문이지만, 두 구문간의 상호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미완성 연구라 할 수 있다.

CR 구문 연구의 또 다른 주요 논점 중에 하나는 주절의 주어 위치가 의미역(thematic)을 받는지의 여부이다. CR 구문의 주어가 의미역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현상에서 보여준다. 특히 아래 예문에서와 같이 CR 구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허사 it이 주어로 사용되는 외치(extraposition) 구문을 고려하면, 주어 자리가 비의미역(nonthematic) 위치임을 말해준다.

- (17) a. It seems like those are kind of momentous. (COCA 2010 SPOK FOX)
- b. It seems as though they just want to interrogate me. (COCA 2010 SPOK CBS)
- c. It seems as if permits are too often issued. (COCA 2010 SPOK PBS)

실제 말뭉치의 대부분 자료는 이러한 허사가 주어인 외치구문으로 발생한다. 특히 내포절이 as though로 도입되는 경우 CR 상승이 일어난 구문은 그리 많지 않다.

전형적인 상승(raising)구문에서 통사적 논항자리가 의미역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의미역을 가지지 않는 허사(there나 it)나 속어(idiom)의 일부분이 주어나 목적어로 사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Davies and Dubinsky 2004). CR 구문의 주어자리도 이러한 속성을 보여준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18)과 (19)에서처럼 내포절의 주어가 허사로 요구되는 경우, 주절의 주어도 허사가 허용된다.

- (18) a. It seems not to be enough cold.
- b. It seems like it isn't enough cold. (COCA 2008 SPOK NPR)

- (19) a. There seemed to be so much negative stuff going on at CU.
 b. There seemed like there was so much negative stuff going on at CU.
 (COCA 2008 SPOK CBS)

CR 구문에서 이러한 조건을 위배하는 경우는 (20a)에서와 같이 비문이 되지만, CR 구문이 아닌 (20b)와 같은 경우 이러한 주어 공지시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CR 구문의 주어가 비의미역 자리임을 암시한다.

- (20) a. *John seems like there is no tomorrow.
 b. John eats like there is no tomorrow.

또한 CR이 주어에 대한 의미적 제약이나 의미역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숙어나 비명사구 주어도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1)에서와 같이 CR 구문은 숙어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22)에서처럼 비명사구(non-DP)도 주어로 사용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 (21) a. The cat seems like it is out of the bag.
 b. The shit seems like it hit the fan.
 (22) a. the bed seems like it is an unoriginal place to hide.
 b. Sickeningly sweet seems like it is how Calvin likes his cereal.

이러한 사실들은 CR 구문에서 주절의 주어가 의미역을 갖고 있지 않음을 함축하지만, 문제는 아래와 같이 주어가 공지시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 (23) a. Richard seems like/as if he is in trouble.
 b. Mary looks like/as if her job is going well.

(23a)와 달리 (23b)의 경우 주절의 주어와 내포절의 주어가 공지시하지 않고 있다. Heycock(1994) 등이 지적한 바와 같이 특정한 경우 주절의 주어는 문맥에서 제공되는 실현되지 않는 주어(understood subject)와 공지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4a)의 내포절은 (24b)에서와 같이 문맥적 추론 가능한 주어가 주절어 주어와 공

지시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 (24) a. John looked like something terrible had happened.
 b. John looked like [he just learned that] something terrible had happened.

이와 같이 두 주어의 공지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문맥의 중요성을 말해주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 공지시하는 요소가 주어가 아닌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 (25) a. John looked like something terrible had happened to him.
 b. Bill sounds like Martha hit him over the head with the record.
 c. Emily looks like the cat got her tongue.
 d. Mary appears as if her job is going well.
 e. That book sounds like everyone thinks it should be banned.

위의 예문에서처럼 상위절 주어와 공지시 하는 요소가 전치사의 목적어나 소유대명사 혹은 하위내포절의 주어와 일치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자료들이 의미하는 것은 내포절의 의미 혹은 내포절이 지시하는 명제(proposition)가 대명사와 같은 변항(variable)을 포함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Williams 1980). 또한 인지적 사건 혹은 문맥(context)이 주절의 주어와 공지시하는 요소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CR 구문에서 상황에 따라 주절의 주어가 의미역을 가질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들 문장의 주어 자리가 의미역을 받는 자리라는 것은 허사나 숙어 등이 부자연스럽다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 (26) a. *There seems like John expects there to be an election.
 b. *Tabs appear as if the government keeps them on us.

이러한 문장들의 비문법성은 CR구문의 주어가 의미역을 받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 질 수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환경에 대한 보다 명확한 분석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복사-상승 CR 구문의 다양성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영어의 CR 구문은 다양한 통사, 의미, 화용적 제약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문법정보간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문법정보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경험적 연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COCA 및 COHA 말뭉치에 대한 일차 조사를 진행하여 seem과 같은 상승동사 뿐만 아니라 인지동사를 포함한 2000여 문장의 CR 구문을 추출하였고, 이들 중 약 500여 문장을 세밀하게 분석해 보았다. 말뭉치 자료들을 살펴보면, CR구문이 훨씬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많은 논문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상승동사 seem, appear와 물리적 인지 동사인 look, feel 등과 같은 동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사들이 CR구문을 허용함을 살펴 볼 수 있다 (Bender and Flickinger 1999, Asudeh 2004 참조).

- (27) a. He never spoke as if he needed sympathy. (COHA 1828 FIC)
- b. She only shrugged as if she hadn't heard me. (COCA 2007 FIC)
- c. She ran as if she could go on like that forever. (COCA 1972 FIC)
- d. He should behave as if his mother raised him correctly. (COCA 2003 FIC)

물론 이러한 예문들은 CR 구문과 달리 as if 이하의 절들이 수식어로 볼 수 있지만, behave와 같은 동사의 경우 내포절이 보충어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든 동사들이 이와 같이 as if절과 함께 사용될 수 없다는 사실은 'as if'의 기능을 포함하여 CR과의 유사구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들 말뭉치에서 복사-상승 CR 구문의 주요한 제약인 주절의 주어와 내포절의 주어가 일치하는 실례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 (28) a. Prince appears as if he bears the weight of the world on his narrow shoulders. (COHA 2007 MAG)
- b. He looked as though he had just won the lottery. (COCA 1998 MAG Sking)
- c. My friend and I felt as though we had the run of the white-walled, cinder-blocked place. (COCA 2010 NEWS WashPost)
- d. You feel as if you're in a nice car, not a cheap one. (COCA 2005 NEWS

USAToday)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주어일치 구문뿐만 아니라, 주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래 (29)의 경우 두 주어가 비록 일치하지 않지만, 내포절의 목적어가 주절의 주어와 공지시하는 경우이며, (30)의 경우는 공지시하는 요소가 소유격에 나타나는 경우이다.

- (29) a. The entire scene appears as if the Creator himself had wished it to be so. (COHA 1827 FIC Novels)
- b. She appeared as if his brain had photographed her perfectly. (COHA1930 FIC BlackLight)
- c. Poor Kisel appeared as if nature would fain save him from the executioner's touch. (COHA 1835 FIC)
- (30) a. He appeared as if his heart were broken by her speech. (COHA 1828 FIC)
- b. The sheriff looked as if his stomach pained him. (COHA 1950 FIC)
- c. The infinity pool at the Ritz-Carlton Lodge looks as if its water spills into the lake. (COHA 1847 FIC)

이러한 실례들은 CR 구문이 'Richard' 변형규칙과 같이 내포절의 주어에서 이동한다는 분석으로는 부족함을 의미한다. COCA 및 COHA 말뭉치에서 심지어 주절의 주어와 일치하는 요소가 내포절에서 존재하지 않는 실례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 (31) a. his game felt like we weren't getting a hat on everybody. (COHA 1995 NEWS Houston)
- b. Cayce sounded like we were playing twenty questions. (COHA 2004 FIC Analog)
- c. Accounting sounded like we were just balance sheets and financial statements. (2004 MAG USNWR).
- d. They looked as a family member died. (COCA1999. MAG)

이러한 말뭉치 자료가 의미하는 것은 CR 구문의 두 주어가 공지시 해야 한다는 제약이 너무 강함을 보여주며, 화용적 요소 등도 주요한 역할을 담당함을 의미한다. 특히 내포절에서 문맥상 제공되는 개체 중 인지할 수 있는 가장 명시적

(salient) 요소는 주절의 주어와 공지시 하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31c)의 경우 내포절의 궁극적인 의미를 가정하는 것은 “accounting”으로 이는 주절의 주어와 공지시하며, (31d)의 경우에서도 내포절이 제공하는 개체인 they와 their family member 중 they가 보다 명시적이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화용적 공지시’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공지시 관계가 통사적 관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화용적, 인지적 관점에서도 결정됨을 보여준다.

말뭉치 자료가 가져다주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아래처럼 허사 주어가 구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31) a. Looks like they'll be building another wall.

(COCA 2007 NEWS Washington Post)

b. Cigarette bring me living. Seem like cigarette take me out of my old black hide (COHA 1941 FIC)

c. Just wanted to touch base, Senator. Looks as if everything's moving along verynicely. (COCA 2008 FIC)

이러한 예문들은 주어자리가 비논항 자리임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또한 아래와 같은 말뭉치 자료는 CR 구문이 전형적인 상승(raising) 구문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2) a. He regarded me as if I had just executed some comic trick. (COCA 2001 FIC)

b. Many dogs treat cars as if they were animate. (COCA 1992 FIC)

위의 예문은 주절의 목적어가 내포절의 주어와 공지시하는 경우들이다. 주절의 목적어 자리는 의미역을 받지 않는 상승(raising) 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치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주요 말뭉치 자료들은 통사적 이동에 기반한 분석의 한계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복사-이동 구문이 사용되고 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설명력 있는 분석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5. 논항실현과 해석 제약

5.1 복사-상승구문에 대한 어휘적 제약

복사-상승 CR 구문을 설명하기 위해 지금까지 살펴본 CR 동사 구문의 속성에 따라 CR 동사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먼저 구분한다.

(33) a. genuine-cr 동사: seem, appear

b. perception-cr 동사: (appear), sound, look, feel, taste

이들 두 종류의 동사의 가장 큰 차이는 주어의 의미역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CP 절을 보문으로 취하는 경우 seem/appear는 허사 it을 주어로 취할 수 있지만 인지동사는 허사를 주어로 취할 수 없다.

(34) a. It seems/appears that John is intelligent.

b. *It sounds/looks/smells that John is strange.

이러한 차이는 부정사구문에서도 나타난다. sound는 seem과 달리 허사를 주어로 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승(raising)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35) a. It seems/appears to rain.

b. *It sounds/looks/smells to rain.

(36) a. There seems/appears to be a riot in the park.

b. *There sounds/looks/smells to be a riot in the park.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복사-상승(CR) 구문의 경우 두 유형의 동사군이 동일하게 행동한다.

(37) a. It seems like John is smart.

b. It sounds like John is sm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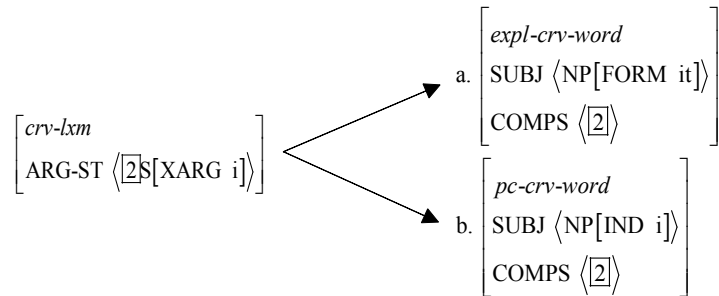
이러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설명하기 위해, 본 논문은 CRV 동사 두 유형 모두 다음과 같은 어휘정보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한다.³⁾

(38)

$$\begin{bmatrix} crv-lxm \\ ARG-ST \langle S \rangle \end{bmatrix}$$

즉, 이들 동사 어휘소(lexeme)는 통사부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단어(word)로 구현될 때 두 가지로 구현되는 것으로 본다 (사전부는 lexeme 요소와 통사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word 요소로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Kim and Sells 2008 참조). 즉 복사상승동사의 어휘소(crv-lxm: copy-raising-verb-lexeme)는 다음과 같이 허사주어상승동사(expl-crv-word: expletive-copy-raising-word)와 인지-상승동사(pc-crv-word: perception-copy-raising-word)로 구현된다고 명시한다.

(39)



위의 구현이 의미하는 것은 복사-상승동사 crv 어휘소는 하나의 논항만 취하지만, 이것이 주어 SUBJ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보충어 COMPS(complement)로 구현된다는 것이다. 이 때 (a)의 경우 주어는 허사 it으로 구현되지만 (b)의 경우 주

3) 여기서 사용되는 자질구조는 HPSG 문법 틀에 기반한다 (Sag et al. 2003, Kim and Sells 2008 참조). 자질구조내의 상위부분의 이탤릭은 자질구조의 유형 type을 의미하며, 이는 자질구조의 속성(attributes)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어는 논항의 외부논항(XARG: external argument)과 공지시하는 어휘로 투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ppear의 경우를 살펴보면 어휘소의 단계에서는 문장단위의 하나의 논항만 취한다.

(40)

$$\begin{bmatrix} appear \\ AGR-ST \langle S[XARG i] \rangle \end{bmatrix}$$

이 어휘소가 (39a)와 (39b)와 같이 단어(word) 요소로 구현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두 가지 가능성으로 구현된다.

(41)

$$\begin{matrix} \text{a. } \begin{bmatrix} \langle appear \rangle \\ SUBJ \langle NP[it] \rangle \\ COMPS \langle [2CP[FORM like]] \rangle \\ ARG-ST \langle [2] \rangle \end{bmatrix} & \text{b. } \begin{bmatrix} \langle appear \rangle \\ SUBJ \langle NP[IND i] \rangle \\ COMPS \langle [2CP[XARG i]] \rangle \\ ARG-ST \langle [2] \rangle \end{bmatrix} \end{matrix}$$

이러한 단어들은 다음과 같은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 즉 (41a)는 아래 (42a)를 (41b)는 아래 (42b)를 생성할 수 있다.

- (42) a. It seems like John is smart.
b. John sounds like he is smart.

허사 it의 구현은 선택적인 것으로 말뭉치 자료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허용한다.

- (43) a. Seems like fishing bring sout the best in a man.
b. Sounds like he is preaching exclusion.

위의 문장들은 주어가 허사로 구현될 수도 있지만, 빈공소로 남을 수도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39b)의 경우 주절의 주어와 내포절의 주어 XARG가 공지시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이는 (42b)와 같은 문장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Richard Copying 예문들을 허가한다.

- (44) a. John seems like he has to be right all the time.
- b. John looks like he checks the mirror every morning.

앞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어가 이와 같은 일반명사인 경우뿐만 아니라 허사인 경우도 허용한다.

- (45) a. It appears like it is always cold outside.
- b. There seemed like there was always plenty of food.

그리고 허사의 경우 지시체 값이 다른 경우는 비문을 만들어 낸다.

- (46) a. *There seemed like it was raining.
- b. *It sounds like there is a very cold side to her.

지시체 INDEX 값의 역할은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47) a. His parents seem like they are more active with their children.
- b. His imagery appears as if it is xeroxed.

5.2 복사-상승구문의 해석적 제약

앞 절에서 살펴본 예들은 주절의 주어와 내포절의 주어가 공지시하거나 혹은 주절의 주어가 허사로 구현되는 경우들이다. 그러나 실제 언어 사용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 (48) a. He appeared as if his heart was broken by her speech.
- b. Her skin appeared as if she didn't take a bath for years.

- c. The lawn looked as if someone had brushed it.

위의 예문에서 주절의 주어와 공지시하는 표현을 살펴보면 각각 주어의 지정어(specifier),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주절의 주어와 공지시되는 표현이 내포절에 전혀 없는 경우도 찾아 볼 수 있다.

- (49) a. They look as if air had been blown in and then sucked out.
- b. You sound as if the man has no choice in the matter.
- c. She appeared as if everything were finally in its place.

이들 예들의 공통점은 전형적인 CR 구문에서 찾을 수 있는 주어 공지시 조건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통사적 구조에 기본적인 대명사-복사(pronominal copy) 조건이 위배되는 경우들은 궁극적으로 해석제약(interpretive constraints)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50) a. This noise seems/appears/sounds/*feels/*looks/*tastes like Eric is responsible for the production.
- b. The moon seems/appears/looks/*feels/*sounds/*tastes like the orbit is nearly circular.
- c. This book appears/seems/sounds/?looks/?feels/?smells like everyone should own a copy.

위의 (50a) 예문에서 소음을 인지함으로써 이것이 Eric이나 누군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지만, 이 소음의 인지 과정이 느낌이나 시각 혹은 미각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청각적 작용에서 기인한다. (b)에서는 달의 모양은 우리의 시각적 능력에서 인지하고 이로부터 궤도가 원형이라는 사실을 추론하게 된다. (c)에서는 책에 관해 문맥에 따라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청각 모두로부터 특정한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책의 모양이 중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책 냄새가 주요한 인지적 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CR 동사 구문의 주절어 주어는 다음과 같은 해석적 제약을 가진다 (Landau 2009, Asudeh and Toivonen 2007 참조)

(51) P-source 제약

CR 동사 구문의 주어는 기술하고자 하는 상황의 인지적 추론의 근원(source)이다.

즉 이는 CR 동사구문의 주어는 주어진 사건에 주된 참여자(participant)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50)의 예문들에서 주어는 내포절이 기술하는 사건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을 알 수 있다. 즉 소리 noise, 달 moon, 책 book은 내포절이 기술하는 사건을 추론할 수 있도록 하는 인지적 작용에 대한 원천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주어로부터 내포절을 추론할 수 있는 인지적 작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비문을 생성하게 된다.

(52) a. *Bill appears as if Mary is intelligent.

b. *Tina seems like Chris has been baking sticky buns.

위의 예문에서 Bill이나 Tina로부터 내포절이 기술하는 사건을 추론할 수 있는 어떠한 인지작용도 촉발할 수 없다. 즉 Bill로부터 Mary가 현명하다는 사실이나 Tina로부터 Chris가 빵을 굽는 것을 추론하기에는 일반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를 살펴보자.

(53) a. The house smells like you have been cooking all day.

b. You sound as though this is still work in progress.

c. They looked as a family member died.

집안에서 나는 냄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요리를 하고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으로부터 진행 중인 과제가 어느 정도로 진척이 되었는지도 추론할 수 있다. 혹은 사람들의 슬픈 모습으로부터 가족이 상황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록 내포절에 주절의 주어와 공지시하는 요소가 없는 CR 구문의 허용은 인지적 추론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을 알 수 있다.

6. 결론

본 논문에서 영어의 복사-상승구문 CR은 경험적, 이론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제시함을 살펴보았다. 주절의 주어와 내포절의 주어가 공지시하는 전형적인 CR 구문은 이동(movement) 규칙이 어느 정도 설명력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언어사용에서, 이러한 공지시 관계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동 규칙에 기반한 통사적 분석의 한계를 찾아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실제 말뭉치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복사-상승구문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CR 동사의 논항 요소들이 실현될 때 특정 제약을 가짐을 가정한다. 특히 문장 단위의 논항이 보충어로 구현되며, 주어 요소는 허사 혹은 보충어절의 주어와 공지시 되는 것으로 구현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항실현에 대한 제약과 함께, CR 구문의 주어와 보충절에 대한 해석적 제약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해석제약은 CR 구문의 다양성을 설명해 주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같이 어휘부 정보, 논항실현 제약, 통사부 제약, 의미해석 제약들이 상호작용하는 분석이 이동과 같은 통사부 기제에만 의존하는 분석보다 설명력이 높음을 살펴보았다.

참고문헌

- Asudeh, A. 2004. *Resumption as Resource Management*. Ph.D. Thesis, Stanford University.
- Asudeh, A., and I. Toivonen. 2007. "Copy Raising and Its Consequences for Perception Reports", In Grimshaw, J. et als (eds.), *Architectures, Rules, and Preferences: A Festschrift for Joan Bresnan*, Stanford, CA: CSLI Publications.
- Bender, E., and D. Flickinger. 1999. "Diachronic Evidence for Extended Argument Structure", In Bouma, G. et als (eds.), *Constraints and Resources in Natural Language Syntax and Semantics*, 3-19, Stanford, CA: CLSI Publications.
- Chomsky, N. 1982. *Some Concepts and Consequences of the Theory of Government and Binding*, Cambridge, Ma: MIT Press.

- Davies, W. and S. Dubinsky. 2004. *The Grammar of Raising and Control: A Course in Syntactic Argumentation*, Malden, MA: Blackwell.
- Heycock, C. 1994. *Layers of Predication*, New York: Garland Publishing Co.
- Kaplan-Mirh, A. 2000. *The Movement Rule Formerly Known as Richard*, Ms. Yale University.
- Kim, J.-B., and P. Sells. 2008. *English Syntax: An Introduction*, Stanford, CA: CSLI Publications.
- Landau, I. 2009. "Saturation and Reification in Adjectival Diathesis", *Journal of Linguistics* 45, 315-361.
- Lappin, S. 1984. "Predication and Raising", In C. Jones and P. Sells (eds.), *Proceedings of NELS 14*, 236-252, Amherst, Ma: GLSA.
- Moore, J. 1998. "Turkish Copy-Raising and A-Chain Locality",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6, 149-189.
- Postal, P. 1974. *On Raising*, Cambridge, Ma: MIT Press.
- Potsdam, E., and J. Runner. 2001. "Richard Returns: Copy Raising and Its Implications", In A. Mary et als. (eds.), *CLS 37: The main session*, vol, 1: 453-468, Chicago, IL: Chicago Linguistic Society.
- Rogers, A. 1971. "Three Kinds of Physical Perception Verbs", In *Papers from the Seventh Region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206-222, Chicago: Chicago Linguistic Society.
- Rogers, A. 1973. *Physical Perception Verbs in English. A Study in Lexical Relatedness*, Doctoral Dissertation, UCLA.
- Rooryck, J. 2000. *Configurations of Sentential Complementation: Perspectives from Romance Languages*, London: Routledge.
- Sag, I., T. Wasow, and E. Bender. 2003. *Syntactic Theory: A Formal Introduction*, CSLI Publications.
- Ura, H. 1998. "Checking, Economy, and Copy-raising in Igbo", *Linguistic Analysis* 28, 67-88.
- Williams, E. 1980. "Predication", *Linguistic Inquiry* 11, 203-238.

김종복

130-7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전화번호: 02-961-0892

전자우편: jongbokkim@gmail.com

투고논문접수일	2012년 10월 29일
논 문 심 사 일	2012년 11월 15일
심 사 완 료 일	2012년 12월 19일